

#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모두 다 보아야!

## 21면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그렇게 행이나 하고, 열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초월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기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달라고 그럴 테냐?" 하고 야단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아...' 그거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父)와 자(子)가, 주인공과 자기와 둘 아니면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 그냥 천가가 되는 거예요. 꼭 주인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딴습니까, 착과 뿌리가 한 데 붙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해야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을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봐야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 백억화신으로 나뉘면서 화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한 찰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겁내지 말아야 된단 얘깁니다. 깨치고 안 깨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판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자기를 자기가 믿으려면 왜 못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들로 보지도 말아야죠.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모두 하고 나가니까 이런 것도 당신은 다 할 거다.' 하고 믿고 나간다면 '아이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잘 가계 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 참다운 태교를 하려면...

**문** 참다운 태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 범우입니다. 사람 하나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인류 사회를 향한 큰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스님 법문에서 진정 중요한 태교는 임신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범우들이 좋은 인연의 배필을 만나서 가족과 집안을 화합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의 되게 할 수 있는, 선종의 자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어린이를 낳으려면 임신하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동을 세우려면 먼저 마당을 다듬고 공구리를 쳐야 하듯이 어린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해야 할 태교가 있는데, 거기에 일곱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곱 번의 태



**일체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합쳐지듯  
입력된 모든 것을 보임을 하려면  
생활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내 안의 근본자리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가 아니라면 차원이 높은 인연을 맺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먼저 터를 다듬어야 하듯이, 공자님 어머니가 좋은 영가님을 달라고 해서 공자님을 낳았듯이 임신하기 이전부터 태교가 중요하합니다. 그 태가 자기보다 좀더 나은 인연, 차원이 높은 인연을 만나게 돼서 자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가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또 태교를 해야 합니다. 즉 죽 말 일곱 달 아홉 달, 이렇게 세 번이 태교에 너무나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 영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자주 나와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력됐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던 그대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하고 야단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없애고 어린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일체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합쳐지듯이 입력된 모든 것을 보임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일체를 제논이 한 거고 제논이 몸뚱이도 형성시킨 거니까 그냥 모든 것을 보임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기 짝이 자기 뿌리한테 의지하고 거기가 보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공부이자 진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 집을 짓는 것도 역시 일곱 번의 과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터를 닦고 기초를 하고, 그리고선 그 계 굽으면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면 그뻐입니까? 기와를 올리고 또 안과 밖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죠. 이런 일곱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낳는 거와 같이 집도 그와 같다면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마디 해야 할 것은 이 부처님 법이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거기에 관하면, 깊은 데다가 진정코 관하면 바로 정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입력된 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을 되집어서 거기에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운 입력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뜻을 잘 아시면 지금 이 험난한 세월에도 무난히 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참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문** 스님께 삼 배를 올리으며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쯤 전에 사고로 몸을 심하게 다친 후 관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제가 잘못하였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참으로 참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 가야 하며 기나고 고통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일에 대한 회한이 한꺼번에 올 때는 어떻게 관하여 가야 하는 것이지요?

**답** 내가 항상 저 나무를 뿌리하고 짝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짝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내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종 알갱이 하나라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어도 할 수 있던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거나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 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 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

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올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러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부를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살리는 것도 전부다 내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눈 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통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도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도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면 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처님을 이마에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놔지만 때로는 금으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팅팅 빈 몸습이다. 텅 텅 빈 몸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 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알 양으로 예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든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줘달라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 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보아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극장 스크린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담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러려면 그냥 야단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들어 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라도, 그런데 고기들을 잡는다고 얼음을 깨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쫑뻑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데, 스님네 들은 하나도 거침없이 걸어나 어디 다치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긴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렸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 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 기초의식 및 범음 범패 교육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스님, 법사, 보살님, 일반인 누구도 가능합니다.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초과정 (3개월)	도량석·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예불 및 불공 (매주 월·토요일 오후 2시~5시)
전문과정 (1년)	천도재(49재)·점안의식·구병시식·작법 <나비춤, 바라춤, 도량계, 다계, 오집바라, 사다라니 바라> 사물다루는 법
기초과정을 이수한 분에 한함	◆개강일 : 2007. 9. 3(월요일 오후 2시)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2매

### 생활역학 지리 강좌 (수시모집)

◆개강일 : 2007. 9. 7(금요일 오후 2-4시) ◆강의 : 운산스님

■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052)247-8883, 238-8819, 010-4554-1412

## 보은사 울산 교육원 통명정사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상 친사회 | 전각 예술가 고암 정병태 전통을 이어 세계와 소통한다  
현장 속으로  
[1] 현장 스님이 인솔하는 일반 속의 불교문화 탐방  
[2] 다보수련원, 제5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 캠프  
연속기획 | 행복 시리즈를 마감하며, 불교가 세상을 향한다 - 사심법과 행복  
행복은 유망을 넘어 내고자 하는 수행을 통해  
달리이 라미와 탁발한 스님이 전하는 사심법과 행복  
항구로운 말 한마디에 행복이 온다  
사람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 선원사 공양주 보살, 대불원 후원자 이항 기자, 교사 유윤식, 대학생 혜  
외복사자 이어진, 무료 급식소 민들레 밥집의 두마 스님, 부산의료원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 불교 여성 노숙인 쉼터 화엄동산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류의 실천 수행 | - 평생의 동반이 될 배우자를 찾아라  
종법 스님의 자기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어경』

소설가 정찬주와 때로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목(수해하마상)  
보리수 아래 가부좌를 뜨니 신심이 솟구치는구나  
생활불교 가이드 | 4대 재일은 무슨 날입니까?  
술집 | 시화호 갈매기공원에서 여름을 잊다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한 통의 편지를 쓰는 가을에게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원효의 시대와 마음을 헤아리다(개암사 | 내소사)  
집중인터뷰 | 허참고 무의미한 일상에 깨달음을 주는 배우 연극인 유순은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가회박물관  
젊은 소설가 박성진이 쓰는 유쾌한 풍토 | 『인연과 연인』  
독자기사의 세계음식문화여행 |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중국의 음식문화  
칭찬합니다 | 추운 겨울, 청수부 아저씨를 도운 젊은 친구들  
법한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일곱 종류의 예불(七種佛)  
건강 요가, 내 몸 내가 다스린다 | 웃음요가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사심법(四心法)과 행복